

경제

‘기아 명차’ 지역경제 이끈다

해 소울·봉고 명차 전통 잇는다

디자인 소울·서민용 봉고 “내가 제일 잘나가”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전략 차종인 소울이 출고에 앞서 광주1공장에서 최종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외시장 주목받는 ‘소울’=소울은 경쾌한 키로 보면 SUV(스포츠투윌리티차량)과 비슷하고, 타보면 승용차 같은 차량이다. 그래서 SUV(크로스오버윌리티차량)여러 차종을 조합한 형태의 차량이다. 기아차 ‘디자인 경영’의 결정체로, 최근 생산 100만대를 돌파한 스포티카의 뒤를 이은 광주공장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카다.

주2공장도 소울을 병행해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소울은 지난달까지 3년2개월간 약 45만대가 생산됐다.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2008년 11월 유럽시장에, 이듬해 1월 북미시장에 진출했다. 진출 첫해부터 미국에서만 3만1621대가 판매돼 동급 경쟁차종인 도요타 싸이

소울 - ‘디자인 경영의 결정체’ 해외서 인기 봉고 - ‘움직이는 포장마차’ 서민 사랑 듬뿍 그랜버드 - 국내 대형버스 시장 40% 점유

언Xb, 닛산 큐브를 앞지르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3월에는 월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3년 연속 북미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올들어 11월 말까지 15만1395대를 생산해 이 중영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과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우수디자인상 대통령상’, 캘리포니아 ‘10대 멋진 신차, 미 사스 자동차기자협회 ‘최고 가치상’ 등 20여개의 각종 권위 있는 상을 휩쓸었다.

◇서민경제 동반자 ‘봉고’=1t 봉고 트럭은 ‘움직이는 포장마차’, ‘서민 재산목록 1호’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80년대 자동차산업도 군사정권의 눈치를 봐야했던 시절, 봉고는 기아차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봉고신화’를 일군 봉고승차자는 단종됐지만, 1t 봉고 트럭은 소하리 공장에서 지난 2000년 광주공장에



로 생산라인을 옮겨 지금도 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광주공장은 생산라인 합리화 사업을 거쳐 3공장을 봉고 트럭 전문공장으로 바꾸고, 봉고 트럭의 명성을 잇는 3세대 봉고 트럭인 ‘봉고III’를 내놓았다. 이후 국내 유일의 1.2t 봉고 트럭과 4륜구동 트럭도 출시했다.

4륜구동 트럭은 힘이 세고 적재공간이 충분해다. 유해물질 저감 및 양수기·분무기·탈곡기 등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편의성이 더해지면서 인기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1t 봉고 트럭의 경우 외관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늘어날 때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더라도 하면 여지없이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탓에 서민경제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세대 봉고 트럭의 판매량은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4만대에 이른다. 봉고 트럭의 인기비결은 품질에 있다. 또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수도권 공영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진동과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 승차감이 뛰어나고 고성능·친환경 LPI엔진을 탑재해 저속성을 구현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5년간 20만km를 운행하면 디젤차량 대비 약 760만원이 절약된다”며 경제성을 강조했다.



◇최첨단 신기술 결정체 ‘그랜버드’=기아차 광주공장의 최정수 차장은 ‘그랜버드’다. 전신인 아시아 자동차때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랜버드는 1994년 시판 이래 국내 대형버스 시장을 이끌어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국내 대형버스 시장의 4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7년 11월에는 연구개발기간 3년 500여억원을 들여 ‘뉴그랜버드’를 선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그랜버드를 한층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적용하고, 최첨단 신기술 신사양을 대거 장착해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을 내놨다.

이 버스에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해 성능·연비·내구성을 인정받은 12ℓ 급 파워택 엔진과 10ℓ 급 H엔진이 탑재해 출력(최고출력 425마력)을 높였으며, 전자식 기변터보차저(VGT), ZF 6단 변속기, 최적의 리어 엑셀 기어비 등을 적용해 연비를 개선했다. 광주공장은 이밖에 1975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30여년 동안 군용차를 공급하는 군용차 전문 생산공장이기도 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역 1조 달러 돌파... 세계 9번째

정부 수립 63년만에 처음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들어 이날 오후 현재까지 통관 기준 수출입 누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 5천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지 63년, 또 1962년 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에 매진한 지 50년 만이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그동안 1조 달러를 달성한 8개국 가운데 작년 이를 유지한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1조 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거대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한국제품에 대한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무엇보다 올해 8월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산했지만 철강, 자동차,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신중국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당초 예상

과 달리 흔들리던 1조 달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신흥국로의 시장권력 이동, 기술의 융·복합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급속한 진전이 무역전선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등장함으로써 향후 한국경제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대기업 중심의 무역과 수출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으로 무역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은 미래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경부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현대삼호중 선박 2척 올해의 세계 최우수 선정



컨테이너운반선 ‘머스크 에디슨’호.



원유제품운반선 ‘삼호 아마존’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사장 오병욱)은 5일 자사에서 건조한 선박 2척이 세계적인 조선해운 전문지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선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이후 세계 유수의 조선해운 전문지에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선박은 원유운반선 6척, 컨테이너운반선 3척, 자동차운반선 2척 등 모두 11척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박은 원유제품 운반선 ‘삼호 아마존(SAMCO A-

MAZON)호와 컨테이너운반선 ‘머스크 에디슨(MAERSK EDISON)호’로, 영국에서 발간되는 조선해운 전문지인 ‘네이빌 아키텍트(NAVAL ARCHITECT)’가 최근 선정했다.

아마존호는 길이 333m, 폭 60m, 깊이 30.4m의 31만8000t급 초대형 원유제품운반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SAMCO사로부터 수주했다. 최첨단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와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프로

펠 앞의 부가물도 선박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특수장치도 부착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됐다. 현재까지 발주된 원유제품운반선 중 가장 고급 사양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월 선주사에 인도됐다. 에디슨호는 영국 조디악사로부터 수주한 1만3100TEU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길이 366m, 폭 48.2m, 깊이 29.85m로 추후 3개 규모의 초대형 선박이다. 지난 1월 선주사에 인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11월 주식 거래량·대금 감소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11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011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거래량은 5억2997만주로 전년(5억3091만주)보다 0.18%(94만주)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4조770억원으로 전년(4조4615억원)보다 8.62%(3845

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의 경우 2.45%, 거래대금은 2.05%로 전월보다 각각 0.2%포인트, 0.06%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쌍방울, KODEX 인버스, 진흥기업, 동양철관, KODEX 레버리지 등의 순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22.90 (+6.86)
코스닥지수	505.82 (+7.49)
금리 (국고채 3년)	3.38% (0.00)
원·달러 환율	1129.80원 (-1.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평종 위기 식음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철산소를 앞해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상욱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제작: 동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100% 국내산 참돔나무 진액 참돔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돔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돔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된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돔을 만들었습니다.

▶우에 대한 숭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산삼추출물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돔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